

서울보증보험 (031210)

| Company Issue Brief | 보험 | 2025. 08. 19

완만한 회복기조

| Analyst 전배승 | bsjun@ls-sec.co.kr

보험손익과 투자손익 동반 개선

2분기 순이익은 652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31% 증가했으며, 실적이 부진했던 1분기(191억원) 대비로도 큰 폭으로 개선. 보험손익이 431억원으로 26%(yoy) 증가한데다, 투자손익 또한 412억원으로 23년 2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. 투자손익 확대는 환율하락으로 보험금융손익이 크게 개선된 영향이며, 기타투자손익은 대체투자자산의 평가익 축소로 전년동기대비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음. 분기 ROE는 5.1%로 여전히 낮은 수준이나, 이익감소 추세가 일단락되며 상반기 전체로도 24년 대비 실적이 회복세를 보임

완만한 회복기조 지속

보험수익 확대와 손실부담계약비용 감소로 원수 보험손익이 전년동기대비 72% 급증하며 보험손익 개선을 견인. 전분기 대비로는 부진했던 재보험 관련 손익이 회복됨. 2분기 중 보험료 증가에도 보험금청구 증가세가 이어지며 원보험수지차는 감소. 다만 상반기 중 매출채권, 부동산 등 일부 보증의 손해율이 하락전환 하면서 전체 손해를 상승 폭이 크게 둔화됨. 하반기에는 보험금 감소 및 손해를 하락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완만한 실적회복 기조가 이어질 전망. 또한 배경은 정확하게 파악하기 힘들으나 최근 2~3년간 상반기 대비 하반기 보험손익이 확대되는 계절적 특성을 보임

차별적 키스비율을 바탕으로 주주환원 강화 예상

동사의 차별적 강점인 키스비율은 6월말 기준 428%로 3월말 대비 12%p 상승. 또한 보증보험 특성상 부채드레이션이 짧아 금리인하에도 키스비율이 하락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됨. 연 2,000억원의 총주주환원규모를 보장하고 있으며, 하반기에는 추가 기업가치제고계획을 발표할 예정. 예상 배당수익률이 6.7%에 달하는데다 이미 배당성향이 35%를 크게 상회하고 있어 배당소득 분리과세 시행 시 수혜 예상. 현재 PBR은 0.6배로 수익성 개선과 높은 총주주환원을 감안 시 충분히 매력적인 수준이라고 판단

Not Rated

목표주가	Not Rated
현재주가	42,450 원
상승여력	-
시가총액	29,639 억원
KOSPI (08/18)	3,177.28 pt

Stock Data

90일일평균거래대금	60.87 억원
외국인 지분율	1.0%
절대수익률(YTD)	33.4 %
상대수익률(YTD)	7.7 %
배당수익률(25E)	6.7 %

재무데이터

(십억원)	2022	2023	2024	25.1H
보험손익	656	384	148	46
영업이익	706	524	280	111
순이익	545	418	213	84
ROE (%)	10.6	8.3	4.1	3.3
PER (x)				
PBR (x)				

주: K-IFRS 연결 기준

자료: 서울보증보험, LS증권 리서치센터

Stock Price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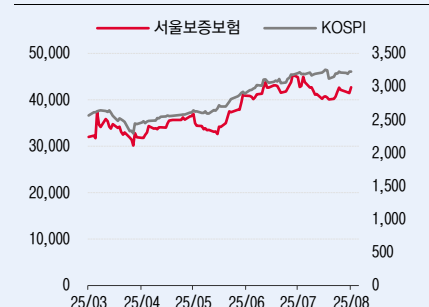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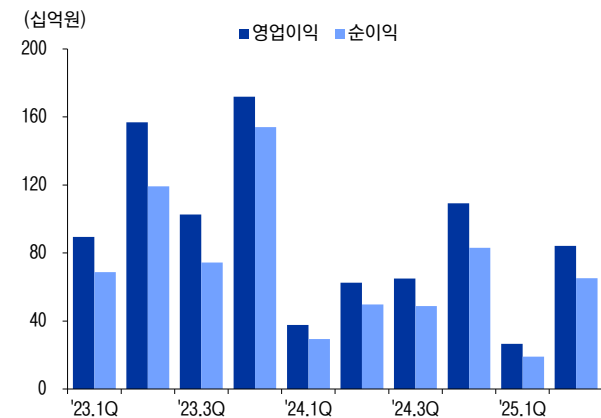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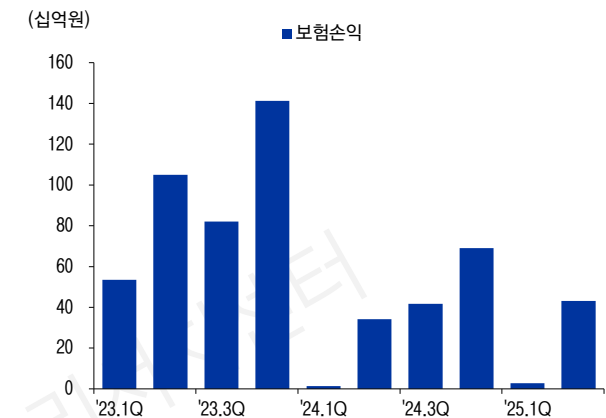


그림1 분기순이익 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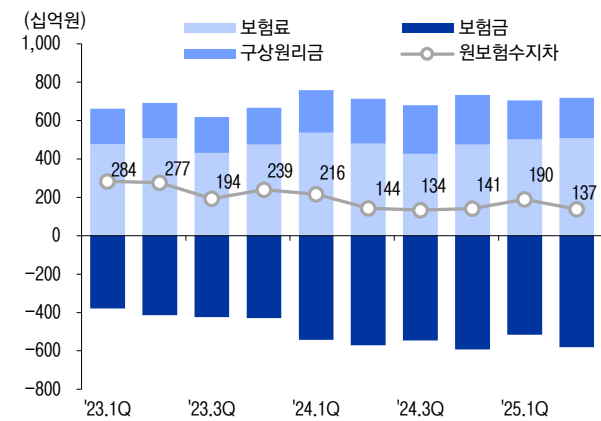
자료: LS증권 리서치센터

그림2 보험손익 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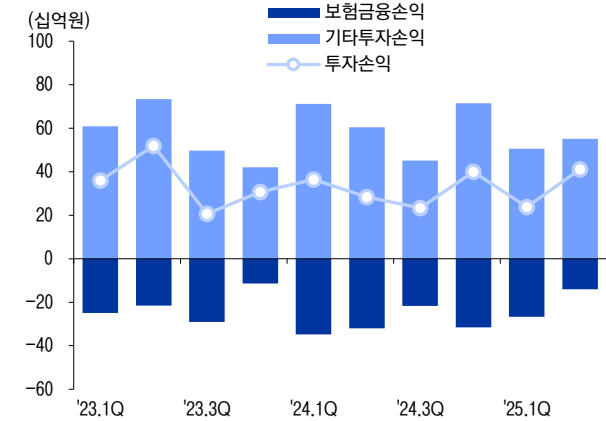
자료: LS증권 리서치센터

그림3 원보험 수지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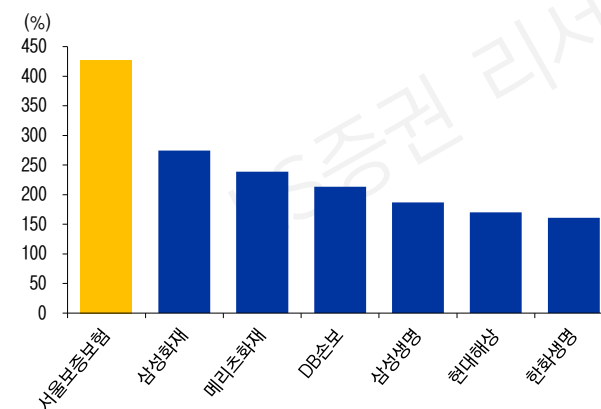
자료: LS증권 리서치센터

그림4 투자손익 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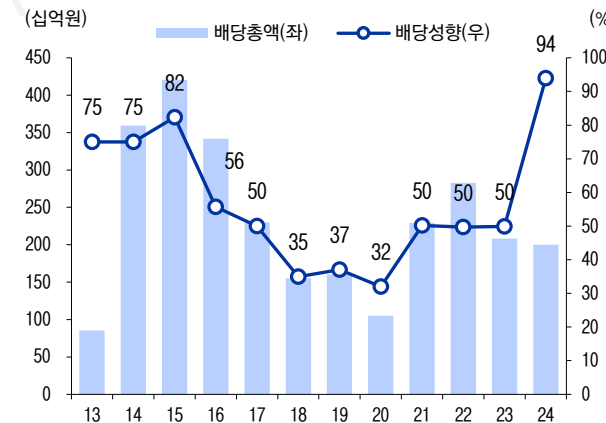
자료: LS증권 리서치센터

그림5 보험사별 킷스비율(2025.06)



자료: LS증권 리서치센터

그림6 서울보증보험 배당 추이



자료: LS증권 리서치센터

